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방지에 따른 유키 시설 사용정지에 대해

2020년 2年4월 22일
오이타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

4월 16일에 「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」이 전 도도부현에 확대되어, 본현도 4월 17일자 「긴급사태선언 대상구역에 따른 4월 18일 이후 대응」에 있어서, 현민에 대해

- ① 3가지 조건(환기가 나쁜 밀폐공간, 많은 사람의 밀집, 근거리에서의 밀접한 대화)가 동시에 겹치는 장소를 피할 것.
- ② 대형 연휴때 도도부현을 넘는 불요불급한 귀성이나 여행등은 절대로 피할 것.
- ③ 관광시설등 집객시설에 있어서도, 입장자를 제한하는 등 3가지 조건을 피할 공리를 하여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.
- ④ 사무소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기회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(텔레워크)를 확대하는 동시에 아우러 시차 통근이나 자전거 통근을 더욱 철저히 할 것 등을 부탁하고 있습니다.

허미 여러분 각 사연자부도 철저히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하고 계시지만 파칭쿠전 등 유키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허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고 있는것이 보이며, 특히 향후 대형 연휴때 이동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

또한 최근 이구 허에서 유키시설에 대해 휴업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, 그 이용자가 본현에 집중하는 것도 우려됩니다.

이 때무에 2020년 4월 24일(금)부터 5월 6일(수)까지 오이타현 지역의 유키시설(마자전 파칭쿠전 오락식등)에 대해 시현 이프루에자트 대책 특별조치법 제 24 조 제 9 항에 근거해, 사용 정지(휴업)의 협력을 요청합니다.